

프롤로그 · 5

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속에서
영석 자신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.
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?

01 아정원 · 13

혼자 조용히 찾아갈 나만의 정원

02 식구 · 19

“항상 손을 잡고 다닐 거야. 내가 죽을 때까지...”

03 바람피워요! · 27

“직접 해보고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해요.”

04 조속한 아이 · 35

나중에 커서 저 아이를 꼭 다시 찾아봐야겠다

05 몰락 · 43

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찝진한 처지

- 06 **작명** · 53
그럴싸한 명분을 주고, 적당한 한자어를 추천하는 일
- 07 **줄서기** · 61
남의 복에 얹혀살아보려고 했던 것
- 08 **일종계** · 71
자리가 사람을 만든다
- 09 **삼종계** · 79
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
- 10 **영면과 탄생** · 87
결국 이렇게 혼자인 것을...
- 11 **각자도생** · 99
돈을 버는 대신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어질걸...
- 12 **알콩달콩 설렁덜렁** · 113
결혼은 사랑 더하기 생활
- 13 **도전** · 125
힘차게 앞으로 내달리는 길만 있을 뿐

14 저승사자 • 139

God Only Knows! 하느님만 안다!

15 돈, 돈, 돈 • 153

돈은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한다.

16 욕도 잘 쓰면 약 • 167

“야! 이 개자식아!”

17 도인(道人) • 173

“뭐든 원하는 걸 하면 다 잘 될 거야.”

18 맨땅에 머리 박기 • 185

성공 여부는 노력 여하에 달렸다

19 문전박대 • 195

가야 할 곳이 없음에 나만의 은신처를 만들 수밖에

20 이리 막고 저리 고이고 • 201

이중적인 피에로(Pierrot)

21 첫 주문 • 217

어떻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단 말인가?

- 22 날벼락 그리고 원군 • 225
그의 마음 썸썸이가 느껴워 가슴이 뭉클했다
- 23 처음처럼, 시작처럼 • 231
다 함께 한마음이 되어, 같이 고민하는 것
- 24 확장 • 239
국내외에서 최고급 인력들을 스카우트
- 25 계열화 • 251
실(失)보다 득(得)
- 26 기업사냥꾼 • 261
모든 정황은 영석에게 불리했다
- 27 귀인 • 267
원하는 일을 하면 다 잘 풀릴 거야.
- 28 여친이 어때서요? • 275
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예요?
- 29 산나물 • 283
손안에 조커를 쥐고 있는 노름꾼

- 30 보은 • 291
오빠가 있어서 참 좋다
- 31 영결(永訣) • 297
어머니, 이제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.
- 32 하차 • 307
평생을 쫓았던 그 행복은 어디에
- 33 사랑은 눈으로 드나니 • 317
그녀의 가슴에 어떤 사람으로 매김되어 있을까?
- 34 이방인 • 329
나는 왜 이렇게 밖에서 맴도는지...
- 35 꿈은 사라지고 • 339
모습과 마음이 없는 나의 실체
- 36 저 결혼할 거예요 • 349
“결코 아빠처럼 살진 않을 거야.”
- 37 데자뷔 Deja Vu • 367
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인데...

38 해피 벌써데이 • 383

“내가 뭘 그리 잘 못 했는지 묻고 싶어.”

39 고백 • 395

“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살 거야!”

40 귀소(歸巢) • 401

삶의 추억은 구석구석 스며들어

에필로그 • 411

영석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버릇이 있다.

지금, 그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.

작가의 글 • 417

農樂 (농악) • 421

남한산성도 • 429

Book Gallery • 431